



광주시청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9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됐다. (사진)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일이 빛나는 어울림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조인철·전진숙·박군택 국회의원, 김영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회원단체, 장애인·가족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포상,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홍보대사 위촉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단체가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금액은 산불피해 복구에 기부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복지향상에 헌신한 장애인 복지분야 유공자 10명에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를 전했다. **정성아 기자**



의사 곽형준씨, 광산구 ‘역학조사관’ 임명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병원을 나와 방역 전선에 뛰어들었던 의사가 광주·전남 지자체 1호 역학조사관이 됐다. (사진)

지난 1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곽형준 의사사무관을 첫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지역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다 지난 2022년 9월 광산구보건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재난을 막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곽형준 의사사무관은 이날 광주·전남 최초의 역학조사관이 됐다. 앞으로 그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방역현장을 지휘하고 유행과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곽형준 조사관은 “광산구 첫 역학조사관으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리,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남부소방, 봄철 산악사고 대비 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이 봄철 산악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20일 남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5~16일 남구 노대동 분적산 등산로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구조대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철기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구조대원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산악사고 유형별 인명구조 방법, 수평·수직구조 운반 기법 숙달, 위험지역 접근 방법 및 산악 지형에 따른 구조 방법, 소방드론을 활용한 공임 및 산악 지형 수색 등이다.

박중훈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역량을 강화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화순전대병원,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성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최근 ‘2025년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을 이수한 21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돕고, 자원봉사 활동 시 돌봄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화순전남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인 심현정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2008년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환자와 가족분들도 항상 감사해 하며 현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호스피스완화팀과 함께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GICON,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광주관광공사의 지목을 받아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광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GCC사관학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SW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 지원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다. **정성현 기자**



서부소방, 독거노인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광주 서부소방은 지난 17일 서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2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화정119안전센터 구급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정 내 전기, 가스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간단한 집안 정리를 돕는 등 건강과 안전,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곽인수 서부소방 119재난대응과장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목포MBC 세월호 취재 연구’, 한국방송학회 논문상

전남대 이오현 교수·광주MBC 김철원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의 원인 중 하나가 지역 언론과 중앙언론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였음을 밝힌 연구가 한국방송학회 김세은 저널리즘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방송학회 방송저널리즘연구회(회장 한국외대 채영길 교수)는 지난 18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제5회 김세은 저널리즘 논문상 수상작으로 이오현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김철원 광주MBC 기자의 ‘지역이바라본 세월호 보도 참사: 목포MBC 기자들의 세월호 참사 뉴스 생산의 경험과 회고를 중심으로’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 교수팀은 해당 논문에서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해 오보가 신속히 정정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지역언론과 중앙언론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지역 재난 보도에 있어서 지역언론의 중요성,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의 상호협조 시스템 구축의 필요



이오현 교수

김철원 기자

요성을 제기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논문이 “김세은 저널리즘 논문상이 지향하는 지역과 소의 계층과 약자를 위한 저널리즘, 사회적 진보와 공통성의 회복을 위한 저널리즘 실천에 부합하며 논문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적 견고함을 갖추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고(故)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학자다. 지난 2017년 KBS·MBC 두 공영방송에서 사장 퇴진 운동이 일어났을 무렵 당시 한겨레 칼럼 ‘몰리나라’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2020년 암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윤준명 기자**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학부모 교육

광주시 동구가 지원하고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조선대학교 솔마루 3층 단체급식 조리실에서 ‘엄마가 배워보는 우리 아이는 뭘 잘 먹을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High- 키 프로젝트’ 일환으로 식생활안전관리원의 편식대접 프로그램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센터 등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제는 ‘당근 편식’이었으며, 이론 교육과 요리 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론 교육에서는 뿌리채소의 종류, 푸드브릿지의 정의와 편식의 이해를 다뤘고, 요리 활동에서는 ‘당근 쥬스 케이크와 당근라페 김밥 만들기’를 진행했다.

교육 이후 4주간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푸드브릿지를 체험하며 아이들의 식습관 변화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주민 센터장(조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편식 개선은 음식을 먹으려는 시도부터 시작된다”며 “부모 대상 영양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당근을 활용한 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를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가정에서도 아이와 함께 편식대접 프로그램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 동부경찰, 공중화장실 방법시설 합동점검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 16일 동구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와 CCTV·비상벨 등 방법시설 작동 상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 동부경찰 제공**